

통의동 보안여관 앞 그 나무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골목을 지나다 외마디 비명소리를 듣는다. 서슬 퍼런 가을비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인다. 소리를 따라 길을 걷는다. 당도한 지점은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앞. 플라타너스로도 불리는 100살 넘는 양버즘나무 등치에는 리본이 걸려 있다. 나무를 살리자는 말이었다.

서촌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암동 은행나무에 이어 통의동 양버즘나무까지 이어지는 나무의 슬픈 내력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까지 스며든다. 언론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5일 이 나무를 베기로 했다. 여기뿐 아니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건너편 두 그루도 벌목 대상이었다.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실제 위험이 예측된다면 그 위험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밀 안전진단과 지지대 설치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부암동의 주민들이 환기미술관 앞의 고사 직전에 놓여 있던 나이든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듯이, 통의동 양버즘나무를 지키기 위해 서촌 주민들과 환경

단체도 마음을 모았다.

베어질 위기에 놓인 양버즘나무가 늘바라 바운 건물은 보안여관이다. 낡은 벽자가 그대로 벗겨진 벽에는 예술이 걸려 있다. 붉은 벽돌 건물인 이곳은 1930년대부터 2006년까지 실제 숙박업소로 운영되었으며 시인 서정주와 소설가 김동리, 화가 이중섭 등이 모여든 장소였다. 시인 서정주는 여관에 묵으면서 동인지를 내기도 했다. 문학의 동지였던 보안여관은 이제 예술 공간이 되었다.

보안여관 앞 양버즘나무는 묵은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여관이 지나온 세월을 꼭 닮은 품도였다. 나무는 그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나무 몸통에 갇게 팬 잔주름은 사람들의 애환을 하나하나 담은 시간의 얼굴이 아닐까. 여관앞 도로 건너에는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이 있다. 나무는 이름 그대로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영추문과 눈 맞으며 긴 시간을 보냈다. 예술·문학, 그리고 역사와 사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마주하며 나뭇잎들은 바람이 옆을 지나면 수련거렸을 것이다. 지지체가 무슨 이유로든 후딱 해치워야 할 그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나무에서’는 서촌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별과 창으로 열린 길을 내어준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에서는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나무 6만여 그루가, 경희궁에서는 130여 그루가, 또 어디에 선가 셀 수 없는 나무들이 무참하게 베어지고 있다.

나무는 사람의 벗이자 고향이다. 도시의 숨구멍이 되어 사람의 물리적·정신적 호흡을 돕는다. 특히 도시의 가로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대기질 개선, 열섬 현상 완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여러 도시에서 가로수로 사용되는 양버즘나무는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 중 하나다. 탄소를 많이 품은 나무일수록 베어낼 때 앓는 것도 크다. 베어낸 나무를 태우거나 잘게 부수어 썩히면, 저장된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다시 대기로 돌아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행정의 사정도 있겠지만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100년 넘게 도시의 한 자리를 지켜온, 기후위기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그저 자신의 몫을 다하며 묵묵히 맞서 온 한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낮익은 건물 앞에서 익숙한 생명으로서 있는 양버즘나무의 소리가 서촌에 가득하다. 그 소리가 행정에까지 번져 효율과 편의보다 공동체와 생명을 먼저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탄탄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긴축’과 정책의 책임



김 지 수 협

김 주 형
(금융부)

기준금리는 하나지만, 이를 건디는 힘까지 같지는 않다. 경제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상이라도 자금 여유가 없는 차주에게는 다음 달 원리금의 문제가 된다. 긴축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평균 지표와 함께 지원이 도달한 시간도 살펴야 한다.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인상에 이은 회의다. 신한송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앞선 금리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선제 대응은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길어지면 생

활비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무겁게 돌아간다. 한은도 9월 금융안정 점검에서 금리 상승의 부담을 대체로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약부문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함께 경고했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0.98%였지만, 다중채무자 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0.39%였다. 7·8월 인상 이전 수치다. 추가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긴축에 들어서기 전부터 달랐다는 뜻이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도 다르다. 한은이 과거 자료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시점은 약 15개월 뒤였다.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은 약 9개월 전후였다. 평균 지표가 악화된 뒤에야 움직이면 취약부문에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은 이미 분석돼 있고 대응도 시작됐다. 신 총재는 국감에서 취약차주 지원을 위

한 재정정책 공조를 강조했고, 한은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이제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차주에게 제때 도달하는 지까지 따져야 한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이자 부담과 연체 추이를 계속 추적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설명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가운데 실제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총지원액만으로는 차주가 원리금을 감당할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기 어렵다.

긴축의 성적표에는 물가와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회복 가능한 차주가 상환 여력을 잃기 전에 도움을 받았는지도 담겨야 한다. 정책이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돌아갔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책의 책임이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9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0년생 가벼운 운동이 길합니다. 72년생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84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합니다.



소

49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1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73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호랑이

50년생 강한 고집은 흠합니다. 62년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뜻밖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6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토끼

51년생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63년생 업무에 잔심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75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쉽게 지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염

52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4년생 김한운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76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뱀

53년생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65년생 꽃보다는 열매라는 식으로 실수를 취하세요. 77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9년생 마음에 드는 이상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세요.



말

54년생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세요. 66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7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0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

55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79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91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원숭이

56년생 꾸준한 독서를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68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여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80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닭

57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81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93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

58년생 말을 조심하세요. 70년생 복잡하게 얽힌 일이 차차 해결될 것입니다. 82년생 조금씩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94년생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1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입니다. 83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독수리 사랑

암독수리에게 먹이를 몰아다 준 수컷 독수리의 애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쇼츠를 보았다. 알을 품고 있느라 자리를 뜨지 못한 암컷 대신 먹이를 구하러 이틀 동안 떠나있다가 먹이를 구해와서는 아내가 먹을 수 있도록 대신 조심스레 알을 챙기며 대신 품고 있었고, 다시 아내 독수리가 알을 품자 풀을 입으로 물어와서는 흡지 않도록 이불처럼 덮어 주는 모습이었다. 미국 빅베어호수의 사랑꾼 독수리 부부에게 주민들이 ‘재키와 셰도우’라는 이름까지 붙여 준 것을 보면 이미 지역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된 사랑꾼 동물 명사일 것이다. “힘난한 야생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짝꿍”이라는 설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에 동물 세계도 인간들 세계와 다름없는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쩌면 인간들의 사랑보다 더 진솔하지 않을까 하는 애뜻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독수리는 누가 뭐래도 하늘의 최강자로 알려진 맹금류이다. 그렇기에 암컷을 살듯하게 챙기는 남편 독수리의 모습이 사납고 용맹스러운 이미지와는 많이도 다른 듯하여 더욱 남다른데 다가온 것 같다. 독수리는 서양의 여러 국가나 단체에서 강한 국가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옛날 유럽의 로마 제국이나 후대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검독수리를 왕조나 권좌의 상징물로 휘장이나 문장에 자주 사용하였다. 흰머리수리의 경우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 미국의 국조이기도 하다. 특히 흰머리수리가 미국의 상징 조류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흰머리수리는 북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토종 조류인 데다가 멀리서도 구별되는 선명한 흰색과 꼬리가 외양적 특징이다. 미국인들의 정신적 핵심 가치인 애국심과 다민족, 다인종으로서의 국가적 단합을 이룸에 있어 강력함과 질서, 신뢰를 주는데 있어 북미대륙의 토종 새인 흰머리수리는 맞춤 상징이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8	9	2	1	2	7	9
7	2	2	8	9	9	6	1	
9	1	9	2	6	7	2	8	8
2	2	7	1	9	8	8	9	6
6	8	8	2	9	9	1	7	
1	9	9	7	8	6	8	2	2
9	8	1	6	9	8	7	2	2
2	9	6	9	7	2	1	8	8
8	7	2	8	1	2	6	9	9

9	1	9	6	7	2	2	8	8
2	2	8	1	8	9	9	7	6
6	8	7	8	9	2	9	1	
8	9	9	2	6	8	8	1	7
2	2	6	7	8	1	8	9	9
8	7	1	9	9	8	6	2	2
7	6	2	9	2	9	1	8	8
9	9	2	8	1	8	7	6	2
1	8	8	2	6	7	9	2	9